“박대통령, 호남출신 인사차별 해소 나서달라”

광주·전남 각계인사 90여명 ‘호남발전 공동선언문’ 발표

균형발전 위해 지역 국책사업 예산지원 촉구

광주·전남 출신 각계인사들이 모여 호남출신에 대한 인사·지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호남미래포럼 한갑수 이사장, 호남미래포럼 김성호 상임운영위원 등 호남출신 주요 인사 90여명은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선 6기 호남발전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호남의 도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호남출신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 사회 각 분야의 인사차별 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 등에서 호남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호남 출신 각계 주요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인사차별 해소를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함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들은 또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호남의 낙후와 소외를 해소하고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에 대한 국책사업과 예산지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호남으로 본사와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빛가람혁신도시가 광주·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500만 시·도민을 대표해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한다”며 기업들의 호남투자를 독려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인터넷 등에서 자행되는 유·무형의 지역차별, 사회갈등 조장행위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에 대해 국민화합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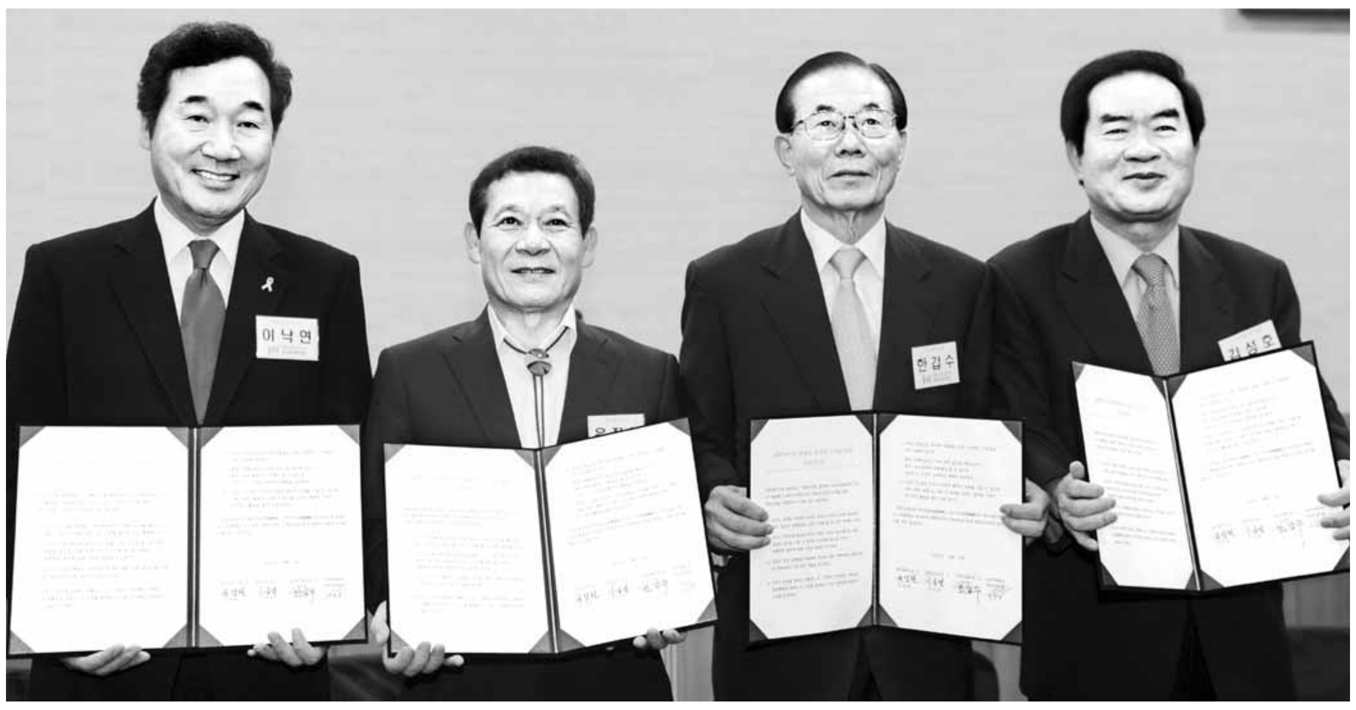
한갑수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충청도가 호남 인구를 추월하면서 영호남이 아닌 ‘영·충·호’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호남의 위상이 줄어드는 엄연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이제는 누가 정권을 잡든 내부적인 사회 통합과 번영된 통일 한국을 위해 망국적인 지역차별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고향 사랑은 폐쇄적이고 편협한 애향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진취적인 호남사랑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살기 좋고 다시 찾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전남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대 이후 호남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됨으로써 수도권, 영남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됐고 지역산업개발, 인재등용에서 호남의 ‘뒤처짐 현상’이 고착화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호남 소외와 좌절을 이대로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역대 정부의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함께 가까운 충청권만 비대해져 ‘수충권(首忠圈)’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의 시작은 남해안선벨트에서 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호남미래포럼 한갑수 이사장, 호남미래포럼 김성호 상임운영위원(왼쪽부터) 등 호남출신 인사들이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미래포럼 주관으로 호남발전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호남의 도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광주시 제공〉

국민 40% “대한민국 미래상은 복지국가”

“경제대국”은 10%에 불과

국민 10명 중 4명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복지국가’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경제대국’을 꼽은 국민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았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4일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22~23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9.8%는 ‘20~30년 후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라고 답했다. 하지만 광주·전라지역 응답비율은 38.1%로 평균보다 낮았다.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 비율은 성별과 연령, 학력, 소득 등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계층에서 30~4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의 복지국가 선호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42.6%), 강원·제주(41.6%) 등이 뒤를 따랐으며, 서울(34.9%)이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약 절반(47.7%)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고, 보수 성향 응답자의 36.4%도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눈예술상’에 작가 이불

신진작가상 벵골리아·세뇨

이불(사진) 작가, 세실리아 벵골리아·프랑수아 세뇨 작가 그룹이 2014광주비엔날레 ‘눈(Noon)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눈 예술상은 이번 ‘터전을 불태우라’ 주제에 가장 잘 부합하고 실험정신이 뛰어난 작품을 출품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현대 미술 발전에 공로를 세운 작가에게 수여하는 중견작가상과 전도유망한 젊은 작가에게 수여하는 신진작가상으로 나뉜다. 중견작가상을 수상한 한국의 이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1989~1990년대 퍼포먼스 영상과 괴물적인 의상 오브제를 선보였다.

신진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된 세실리아 벵골리아와 프랑수와 세뇨 작가 그룹은 퍼포먼스를 통해 생명력의 부활과 환생을 이야기했다.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상으로 마련된 작고 작가상에는 32세에 요절한 일본의 테츠야 이시다가 선정됐다.

중견작가상 수상자에게는 1만 달러의 상금이, 신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50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제 10회 광주비엔날레를 보고

불타면 뭐가 남을까?

정준모

지난 3일 광주비엔날레를 다시 찾았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을 맡아 비엔날레 창설에 일조했다는 원죄(?)로 인해 광주를 찾을 때 마다 “이번 비엔날레는 지난 번 보다 좀 더 나아야 할 텐데”라는 조바심에 마음을 졸인다.

지난 1995년 제1회 비엔날레 개막을 5개월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착공했던 비엔날레 전시관 입구는 제러미 델러의 거대한 초록문어가 벽을 뚫고 나오는 트릭 아트풍의 작품이 관객을 맞았다. 요즘 대한민국 도처에서 열리는 트릭아트에 관한 소문이 영국까지 났는지 예술 감독 제시카 모건은 발 빠르게 이를 제공하는 센스를 보여주었다.

현대미술은 각자 자신의 의지대로 오독(誤讀)의 즐거움을 즐기는 유일한 장르인 탓에 관객의 한 사람으로 오독을 즐겼다. 문어를 보며 1980년 자신의 권력을 위해 광주시민들을 사지로 내 몬 어떤 이가 떠올랐다. 또 다시 그런 자가 나타날지 모르니 언제나 긴장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일까.

이는 물론 작가나 예술 감독의 의지와는 다를 것이다. 바로 현대미술의 묘미는 “내 맘대로 보고 내 멋대로 상상하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 그 자유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대미술이, 비엔날레가 어렵다며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네 멋대로 하라는 데 뭐가 두려운 것일까.

아무튼 올해 비엔날레 전시주제인 ‘터전을 불태우라’는 과거의 역사, 기존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자는 제안으로 읽혔다. 작품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삶을 장악한 편견과 우상, 사이비, 허구, 신화, 인습, 편견, 고정관념, 권위, 금기, 상식, 남자, 여자, 진리, 사상을 불태울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많은 작품들이 다양하게 불태워야 할 것들을 적시하고 그것들이 왜 불태워 없어져야 하는 지 역설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불태워 없어져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을까 또 여전하다는 사실이 섬뜩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런 불태울 것도 불사조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불태워야 할 것들로 가득 찬 전시장은 엘 울티모 그리토의 불꽃과 연기의 이미지로 만든 벽지를 배경으로 배치됨으로서 통일감을 주었다 하나 너무나 ‘불태워야 할 것’들이 우선순위 없이 많이 나열되어 정작 어느 것을 또는 어떤 것을 불에 태워야 할 지 모를 지경이었다. 게다가 불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망라되어 모두 불 태워야할 것 같은 강박증에 시달려야 했다. 마치 다다이스트들이 사전에서 많은 좋은 단어들을 뜯어 흩뿌렸지만 정작 그것을 이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단어는 좋았지만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듯 했다. 게다가 “어떤 물질을 태우게 되면 또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왜 태우는지, 태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태워서 무엇을 얻고자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무조건 태우고 보자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5일 사퇴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이용우 대표이사가 문득 떠올랐다. 사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포스트 이용우’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사실 이런저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주비엔날레가 지닌 국제적인 인지도는 그의 인적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불피해지의 자연복원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지만 광주는 ‘포스트 이용우’에 대한 대안마련을 먼저하고 불을 질러도 질러야 할 것이다. 물론 그의 부재 또는 이후를 생각해서 지금껏 사람을 키우지 않은 책임도 아프게 새길 대목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광주비엔날레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과연 지금까지의 방법이 최선이었는지. 지금껏 총괄감독의 역할을 해온 대표이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공동대표제나 광주시와 기타 민간이 출자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운영주체를 전환하는 등의 대안도 생각해 보아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비엔날레를 광주의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 지역 인사들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광주비엔날레는 매년 국고가 최소한 20억씩 지원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술행사이다. 10회라면 적어도 국고 200억을 타 지방과 미술계가 광주에 양보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태우는 것은 쉽지만 불태운 이후의 대책이 없다면 이는 정말 ‘불장난’에 불과하다.

〈미술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의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금호지점/풍암지점

國家公認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19기)	광주교육대학교(10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4. 9. 5.(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2014. 9. 5.(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2014. 9. 6.(토) 09:10 (중급반)	·월요일 오후반:2014. 9. 1.(월) 14:10 (초급반) ·월, 목 야간반:2014. 9. 1.(월) 19:00 (중급반) ·목요일 오전반:2014. 9. 4.(목) 09:10 (고급반) ·토요일 오후반:2014. 9. 6.(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KWANGJU WOMEN'S UNIVERSITY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